



좋은 사람들의 좋은 글을 보냅니다.  
오늘의 아침편지

## ★ 부름(Calling) ★

가부름은 사람마다 다른 방식으로 온다.  
부름에 화답하는 것은 자아 보존에 필수불가결하다.  
어떤 경우에 부름은 오랜 시간에 걸친 헌신이 되어  
스스로의 정체성과 운명을 뒤흔들기도 하고,  
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위해 가장 아끼고  
믿는 것들을 내놓는 고난이 되기도 한다.  
- 프랜시스 웨슬리의《누가 세상을 바꾸는가》중에서 -

\* '부름'(Calling)은

사명, 또는 소명이라고도 합니다.

누구든 이 세상에 태어난 오직 그만의 임무가  
반드시 있다는 뜻이지요. 그러나 그 부름의 소리를  
끝내 듣지 못하고 자기 삶을 마치는 사람도 있고,  
그 부름으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

고난을 겪어도 부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.

인류의 역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 
남긴 발자국입니다.

보시니 참 좋았더라 / 이 그림을 내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길 기도해요



## 광양사랑의교회

<http://kysarang.org/>

한국교회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.  
한국교회는 꿈이 있습니다.  
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 
예수로 이 땅을 덮는 꿈이 있습니다.  
한국교회는 구제하며 전도합니다.  
한국교회는 전국을 경험하며  
전국을 확장하는 중입니다.  
한국교회는 우는 이와 함께 울고  
웃고 있는 이와 함께 웃고 있습니다.  
어머니 품 속 같은 한국교회가  
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.  
교회로 나가서서 주님 다스림에 순종하여  
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세요.  
이 아름다운 한국교회 중 하나인  
광양사랑의교회를 소개합니다.

대한예수교장로회(통합) 순천노회 광양남시소 소속  
설립일 : 2004.4.12  
545-881 전남 광양시 중동 1617-10번지  
<http://kysarang.org/> www.smileman.info  
☎ 061-793-1294(교회) / 794-7130(사택)  
담당교역자 : 웃는사람 라종열목사 (010-5686-3626)

### • 광양사랑의교회는

주님이 꿈꾸시는 교회  
성령님이 충주시는 교회입니다  
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  
인 공동체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  
하심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이 꿈꾸시며 성령님  
이 충주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광양사랑  
의교회의 꿈입니다

### • 광양사랑의교회는

모든 성도가 매일성경(성서유니온)목상으로 매일  
묵상하는 교회입니다. 어린이, 청소년, 청년, 장년  
이 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같은 말,  
같은 마음, 같은 뜻, 같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  
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 중심의 교회입니다

### 같은말 같은마음 같은뜻 같은열매

형제들이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  
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 
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  
전히 합하라(고전1:10)

### • 광양사랑의교회는

개역개정판 성경과 21C새찬송가를 사용합니다

### 예배 및 모임 안내

주일 낮예배	주일오전 11시
새벽기도회	매일새벽 5시30분
어린이예배	주일오전 9시
청소년부예배	주일오전 9시
삼일밤예배	수요일오후 7시30분
민들레주부목상모임	금요일오전 10시
목상나눔모임	나눔터별 경향시간
화요성경학교	매주화요일 오전10시

### • 광양사랑의교회가 후원하는 곳

국제비전선교회 김경식선교사(스리랑카) SU 에스라



GwangYang SARANG Church | [kysarang.org](http://kysarang.org)

## • 광양사랑의교회 이야기 •

Since 2003MCC 2007GSC 제12권7호 주현절후여섯번째주일 2015년2월15일



\_ 사진\_배은희

일상을 축제로 바꿀 수도 없지만

바꿔놓아서도 안된다.

일상은 달콤한 꿀도 타지 않고

미화하지도 않은 채 견디어내야 한다.

일상은 늘 그렇듯 고달프고 단조로울 것이며

그런 일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견디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,  
향유와 축제만으로 우리네 일상을 다 설명할 수도 살아낼 수도 없다.

\_ 박충의 "내 삶을 바꾼 한 구절" 중에서



## 예수님께서 내 삶에 멋진 그림을 그리시도록

하얀 스케치북 위에 연필을 들고서 도화지의 맨 가장자리를 따라  
주옥 선을 그으며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그림을 그리고는 ‘말’입니다.  
성민이가 네 살 때쯤이었나 봐요. 그 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.  
더 큰 도화지를 주었더라면 더 ‘큰 말’을 그렸겠다 싶은 거예요.

내 힘으로 되는 일이 많지 않다는 걸 갈수록 깨달아요. 어린 마음에  
청년 때는 자존심이 어찌나 강했는지 계획이 얼마나 야무졌는지요.  
자존심이란 건 어찌 보면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지요.  
처음 그 자존심이 무너질 땐 얼마나 창피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. 억지로  
포기하는 아픔이 있었지요. 그런데 어느 순간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 
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요.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로운 것을 건설  
하시려고 내 터를 닦기 원하신다는 걸 알았거든요. 내 자존심이나  
고집으로는 이룰 수 없지만, 내가 무너진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지요.

내가 가진 도화지는 너무 작아요. 그 위에 그림을 그릴 재료와 도구도  
그리 많지 않지요. 게다가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내게 유익이 되리란  
확신도 없어요. 하나님께서 날 위해 가지고 계신 도화지 위에 날 세우  
실 수 있도록 내가 들고 있는 작은 걸 내려놓고 싶어요. 세상이라는  
넓은 도화지 위에 내가 무엇으로 그림을 그릴 지 걱정하지 않아요.  
하나님께서 도구를 주시고 멋지게 그려 가실 것을 믿어요.  
올해 저희 가정에 약속을 주셨지요.  
“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해”라는 이름과 함께 말이지요.  
가슴이 설레요. 하나님께서 어떤 아름다운 건축을 내 삶에 하실지요.  
탄탄하고 멋지게 건설하실 수 있도록 아직도 남아있는 내 묵은 고집과  
습관을 무너뜨리고 벗어버리려고 해요. 기꺼이 기쁨으로 말이지요.

어릴 적 엄마가 주었던 스케치북 대신 넓은 세계를 도화지로 보여주신  
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그림을 그리실 지 기대하며 기도해요.  
예수 믿으세요.  
하나님께서 크고 멋진 그림을 그 삶에 그리실 거예요.

- 글쓴이 이종혜 ☺

### 예배는 복음에 대한 응답입니다

#### 주일 낮 예배

주일오전 11:00

경배와 찬양	10시45분부터 찬양합니다	다같이
예배의부름	찬14장 주 우리 하나님	다같이
신앙고백	사도신경	다같이
참회의기도	영광송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3절만	다같이
대표기도		김나영집사
찬양	찬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	다같이
말씀선포	출애굽기 12:21~36	
주일을 유익케 하신 은혜		
결단&합심기도	찬265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	다같이
봉헌기도		인도자
축도(강복선언)		인도자
나눔&환영		성도의교제

#### 주일오후찬양예배

주일 오후2시  
2\_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 
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(1)

#### 수요기도회

수요일 오후7:30  
묵상나눔모임

#### 새벽기도회

매일 새벽5:30  
출애굽기강해

#### 나눔&환영 *Sharing & Welcome*

##### 2월 주일낮예배 대표기도자 안내

1주:목회기도 / 2주:변석정집사 / 3주:김나영집사 / 4주:이선영집사

\* 새가족 환영 : 우리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.  
예배 후 목사님과 면담이 있습니다.

\* 예배안내 \_ 나눔과감사의연합예배 \_ 주일오전 10:30

- 다음 주일 예배는 연합예배로 드립니다.

\* 절기안내 \_ 이번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.

\* 설날감사예배 예전자료 참고하세요

- 설명절에 드릴 가족예배 지침서 자료 가져가세요

\* 기도제목

- 서성남집사님의 딸 수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

- 교회가족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

